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 역사관 개관

무주군, 최북미술관 1층 전시공간 활용 이안 과정 재현 반차도·디오라마 등 전시

무주군이 묘향산에서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이안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을 개관해 조선왕조 역사의 귀중한 배움터로 활용하게 됐다. 이에 조선시대 역사문화 콘텐츠가 형성되면서 군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은 지난 24일 최북미술관 1층 전시공간을 활용해 101.11㎡ 규모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 역사관 개관식을 갖고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맞았다.

개관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장, 맹갑상 무주문화원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 역사관' 개관을 축하했다.

황인홍 군수는 개관 기념사를 통해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왕들의 행적과 치적을 기록해 놓은 나라의 보물같은 사료였다"며 "그 귀중한 자료가 수백년 동안 적상산사고에 보관돼 있었고,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 재현에 영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 너무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무주군의 문화예술의 산실로 꼽히는 최북미술관에 역사·문화 콘텐츠가 마련됨으로써 무주는 명실공히 역사문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무주문화원 맹갑상 원장은 "무주는 무려 3백여년간 '조선왕조실록'을 수호하고 지켜낸 곳이고, 역사지킴이로서의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자랑스런 곳으로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 역사관이 조성됨으로써 무주만의 독특한 역사·관광·콘텐츠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역사관은 사업비 2억7천500만 원(도비 8천200여만 원 포함)을 들여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은 지난 24일 최북미술관 1층 전시공간을 활용해 101.11㎡ 규모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 역사관 개관식을 갖고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맞았다.

사업에 고삐를 당겨왔다. 개관에 앞서 지난 2020년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 이안 재현 학술용역 고증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1634년 묘향산사고에 있던 13대(태조~명종)실록과 기타 일반서적들이 적상산사고로 이안되는 과정을 재현하는 반차도(그림)와 디오라마(모형)를 제작해 전시했다. 관광객들은 디오라마를 통해 조선시대의 인물모형과 말 모형, 가마·마차 등을 볼 수 있다.

군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안 과

정을 재현한 영상물과 안내 패널로 적상산사고, 이안행렬의 복식과 기물, 적상산사고의 규모와 실록 등 총 6종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역사관을 통해 조선왕조의 역사를 인식시켜준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는 조선역사 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역사관을 관광·역사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나가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도 최우수축제 '익산서동축제'

서동요 스토리텔링 야간경관전시 등 높은 점수 받아 선정

익산서동축제가 야간경관 관광 시대를 열어 가며 전북 '최우수' 관광자원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익산시 주최·(재)익산문화관광재단 주관인 익산 대표축제 '익산서동축제'가 전라북도가 선정한 '2022년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지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는 서동요를 스토리텔링한 백제 유등과 수상 유등, 수상실경공연, 주제연극공연, 백제를 품은 체험 등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금마저수지와 서동공원을 배경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이야기를 전해준 야간경관 전시는 역사문화관광 콘텐츠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익산 서동축제는 축제 기간 현 장평기와 지난 17일 전라북도 지역축제육성위원회가 실시한 시군 대표축제 서면 평가로 진행된 종합심사에서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축제 운영, 축제 발전역량, 축제의 효과 등 문화관광축제 선정기준을 준용해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특히 익산서동축제는 전라북도 평가에서 지난 2019년 유망축제, 2020~2021년 우수축제로 선정된 데 이어 2022년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해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다.

익산서동축제는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을 슬로건으로 지난달 6일부터 28일까지 금마서동공원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주최 측 추산 10만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는 등 지역 대표 축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서동의 일대기를 담은 백제유등 전시를 비롯해 축제의 주요 콘텐츠인 서동의 이야기를 다양한 모습으로 축제 전반에 구현하는 등 축제의 정체성도 강화하고 재미도 확보하며 방문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방문객들의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백제유등과 야간경관 전시는 내년 2월 6일까지 총 70일간 전시를 연장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한다.

시 관계자는 "익산서동축제가 '역사인물축제는 재미없다'는 기존의 이미지를 제대로 벗어 던지며 시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자량이 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고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축제, 전국은 물론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이득훈 기자

한지선 교수 '글래스로드' 출간

조선의 실학자 유득공은 연행사절을 따라 간 북경의 '유리창' 거리에서 이국적 풍경을 포착한다. 북경의 여러 고관이 '해체'라는 안경을 끼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13세기에 처음 등장한 안경은 작지만 유용한 기능 때문에 인류의 필수품이 됐다. 안경은 언제 발명됐고, 어떻게 널리 전파되었을까.

'글래스로드' (위즈덤하우스)의 저자 한지선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는 10세기부터 시작된 인도양 중심의 유라시아 교역 네트워크에서 힌트를 찾았다.

안경은 유럽에서 발명됐지만, 안경 제조 기술의 단초는 이슬람·인도·아시아의 무

역과 문명 교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해양사·문명사를 연구해온 저자는 약 6년간 고문서·사료·논문 등 200여권 이상의 문헌 자료를 분석해 7세기~19세기까지, 실크로드 너머 또다른 문명 교류의 루트인 '글래스로드(glasses road)'를 재구성했다.

저자는 유리와 안경을 네트워크된 공간을 설명하는 증거이자 세계화를 상징하는 메타포로 접근한다.

안경의 발달 과정에서 렌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유리의 발달은 고대부터 점진적인 세계화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기에 안경 발명 이전 시기를 비중있게 다뤘다.

조선에서는 16세기에 처음 안경이 유입된 후, 17~18세기 북경에 다녀온 조공 사절이 유리창 등의 시장에서 안경을 가져와 유통하면서 그 수가 증가했다.

중국에서 제조된 안경을 주로 쓰던 조선인은 점차 디자인이 우아하고 기능도 우수한 유럽식 안경을 선호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의 장인들은 숙련된 기술로 유럽식 안경에 버금가는 안경을 제작해 동아시아 안경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유럽의 안경을 대체했다.

하지만 렌즈 제조법이나 기능을 더 발전시키지 못했고,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과학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저자는 결국 이런 차이에서 19세기 이후 안경 기술 발전의 주도권이 유럽 쪽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분석한다. /뉴시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5권 발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삶을 구술로 기록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5권을 발간했다.

강강술래 박용순 보유자,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영희 보유자, 예천통명농요 이상휴 보유자, 운도장 김중대 보유자, 황해도평산소놀이 고(故) 이선비 보유자의 생애와 활동이 담겼다.

강강술래 박용순 보유자는 결혼 후 6명의 시동생과 8남매 자녀를 돌보며 실질을 일구면서도 강강술래 가락을 잊지 않고 전승했다. 또 70대 만학도가 되어 배움을 재우기도 했다.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영희 보유자는 국악에 철학과 교사로 재직하면서 당대 최고의 명인·명창들과 함께 교류하며 자신의 음악세계를 넓혔다. 지금도 제자양성과 국악의 발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황해도평산소놀이꾼 이선비 보유자는 해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한으로 피난한 뒤 신내립을 받아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황해도의 대표 구거리를 주관하는 무당으로 성장했다.

이외에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해 풍물과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 어른들 어깨너머로 음악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능했던 '예천통명농요' 이상휴 보유자 ▲운도 제작의 가업을 잇기 위해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작업을 이어와, 최근 큰 아들이 보유자로 인정돼 전통 계승이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 '운도장 김중대 보유자' 등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